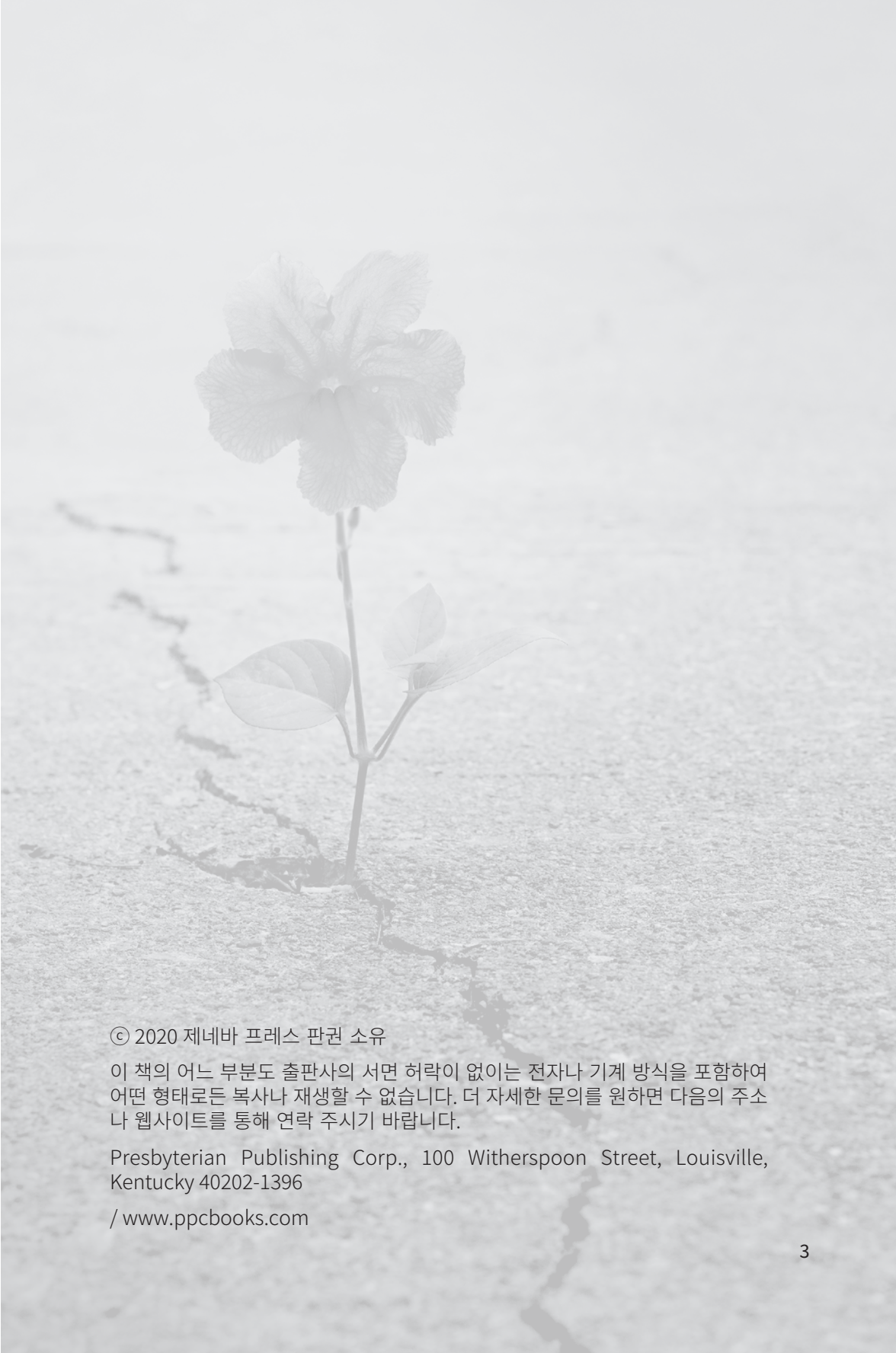
예레미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
희망으로 읽는 예레미야

유승원 목사 지음



ⓒ 2020 제네바 프레스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 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유승원 목사(시카고언약장로교회)
감수자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익태 목사**(코네티컷한인교회)

차 례

편집자 노트 / 5
활용법 / 6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8
총론 / 10

제 1 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 · · · · · · · · · · · · · · · · · 12
제 2 과 사랑, 예전에 참 좋았는데…… · · · · · · · · · · · · · · · 18
제 3 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 · · · · · · · · · · · · · · · · 26
제 4 과 구별된 삶 · 32
제 5 과 마음을 지키라 · 38
제 6 과 토기장이 하나님 · 45
제 7 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 · · · · · · · · · · · · · · · · · 51
제 8 과 하늘로부터 온 편지 · 56
제 9 과 새 언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 · · · · · · · · · · · · 63
제10과 땅을 사는 마음으로 · 69
제11과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통 · · · · · · · · · · · · · · · 75
제12과 고난 받는 사명자 · 81
제13과 이제 바벨론 차례다 · 87

Editor's Note

편집자 노트

한 쪽 귀를 통해서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교회와 관련된 슬픈 소식들을 듣고 있고, 또 다른 귀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때로 어둠과 빛이 서로 뒤질세라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교회의 어두운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떠나가고 있다. 이들을 가리켜 가나안(안나가) 성도들이라 하는 것 같다. 반면에,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고 계신 빛의 소식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교회의 지체들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연대별로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주제별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사야 다음으로 긴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이 책의 많은 부분이 남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읽고 싶은 책도 아닐 것이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다(사 60 : 1-2 참조). 지금 우리 세상에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와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교회의 상황과 다를 것 없이 혹은 현재 교회 상황보다 더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가 가르쳐 줄 것이다. 예레미야는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둠에 마음을 빼앗긴 채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사는 대신에,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서도 한인 전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집필해 주신 유승원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나눔식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이다.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Kingdom Life

활 용 법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플롯으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해석 질문)들이 나와 있다.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참가자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깨달음(encounter)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해도 좋다.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참가자용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 참가자들이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인도자는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인도해야 한다.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말씀에 기초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교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도전하고, 실천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한다.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라. 그런 후에는 한 사람에게 배경설명과 도움말을 읽게 하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참가자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 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Kingdom Life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말씀 깨닫기(30분)

참가자용에는 네 개의 관찰 질문들이 있고, 인도자용에는 관찰 질문들에 기초한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또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렇게 말씀 깨닫기 항목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또한 본문이 현재의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는 이중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도자 지침에 나와 있는 답을 읽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답을 듣는 것만 해도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라.

말씀 따라 살기(15분)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에게 적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질문에 답하게 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을 위한 질문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소그룹이 함께 실천하거나, 또는 개인이 공동체(교회, 기관,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예언자들이 각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들의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둡고 침울하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서는 많은 신앙인들의 심장을 압박하는 중압감 때문에 특별히 더욱 부담스럽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시대의 예언자였다. 그는 요시야 때 시작해서 겨우 3개월 통치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의 시절을 다 겪어야 했다. 그 와중에 예레미야는 동족에 의해 계속해서 거부당하며 조롱받고 위협을 당하면서 40여 년간 힘겹게 사역을 하였다. 그는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에서는 살아남지만 통곡하며 애가서를 써야 했고 전승에 따르면 결국 애굽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예레미야서에 수록된 예언은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게 예루살렘 멸망 이전(1 : 1–45 : 5)과 이후(46 : 1–52 : 34)로 나눌 수 있다. 후반부에는 주변 민족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수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갖는 유다 왕국 시대에 던져진 어두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는 것이 마땅하다.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가는 어두운 터널의 과정이었다. 그 이후 역사는 이미 그 어두운 동굴을 벗어나 광명의 십자가 은혜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주후 2,000년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해 그 이전의 어둠을 뒤돌아보며 현재에 적용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구약의 사건들을 읽어 냈던 사도 바울의 해석과 적용의 관점이 우리에게 적절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 : 11).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과 메시지로 마음을 어둡게

Kingdom Life

총 론

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믿음 없는 죄인들에게 가려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 : 11).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며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한다. 침울한 마음으로 비관적 절망만 감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가장 암울해 보이는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가장 희망적인 '새 언약'(렘 31 : 31-34)을 담고 있는 찬란한 서광(瑞光)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다. "……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 31 : 12-14).

제 1 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1 : 1~10)

제 2 과 사랑, 예전에 참 좋았는데……(2 : 1~8 ; 3 : 6~18)

제 3 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7 : 1~15, 21~23)

제 4 과 구별된 삶(9 : 23~10 : 10)

제 5 과 마음을 지키라(17 : 1~13)

제 6 과 토기장이 하나님(18 : 1~12)

제 7 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27 : 12~15, 28 : 1~11, 15~17)

제 8 과 하늘로부터 온 편지(29 : 1~14)

제 9 과 새 언약,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31 : 23~34)

제10과 땅을 사는 마음으로(32 : 1~15)

제11과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전통(35 : 1~19)

제12과 고난 받는 사명자(37 : 11~38 : 6)

제13과 이제 바벨론 차례다(40 : 1~3 ; 50 : 1~5 ; 51 : 29~32 ; 52 : 31~34)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제1과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결단하게 한다.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예레미야 1 : 1~10

찬송 : 497장(통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이나 임무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써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배경설명 :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세습직이었다.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후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그 신분을 유지했다. 반면 선지자는 지파나 직업에 상관없이 하나

님께서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시는, 본인 당대에 한정된 소명 직분이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에 살고 있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제사장으로 일했다는 기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직분이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 바뀐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13년,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11년 동안으로, 남유다가 몰락해 가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요시야의 일시적 개혁도 이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도움말 :

· 아나돗(1절) : 베냐민 지파에 위치한 레위 사람들의 성읍(수 21 : 18, 대상 6 : 60).

· 알았고(5절, 히 : 야다) : '야다'는 깨달음(창 3 : 7), 정보 인식과 경험(삼하 24 : 2), 인지(창 15 : 8), 익숙해짐(출 1 : 8, 욥 28 : 7), 성관계(창 19 : 8, 왕상 1 : 4), 선택(창 18 : 19) 등의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는 '선택'의 의미로 사용됨.

· 슬프도소이다(6절, 히 : 아하) : 슬픔과 근심을 나타내는 '아아'(alas!) 하는 소리.

· 아이(6절, 히 : 나아르) : '나아르'는 아기(출 2 : 6), 어린이(삼상 1 : 24), 청소년(창 37 : 2), 젊은이(삼하 2 : 14)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지칭하는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 20세쯤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때는 언제였으며,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2–3절, 배경설명 참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배경설명 참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13년,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11년이 포함된 질풍노도의 몰락기였다. 요시야의 일시적 개혁도 이러한 몰락의 기세를 막지는 못 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남유다를 향해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남유다는 회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 난파를 막지 못하고 같이 침몰했다.

예레미야는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위협당하면서 40여 년을 힘겹게 일하다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통곡하며 애가서를 써야 했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다.

몰락해 가는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예레미야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했지만 자기 시대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망해가는 것만 목격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 불행한 선지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일꾼이었다. 별은 어두울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다. 그 시대에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 했어도 주어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는 성공했던 것이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점점 어두워져 가는 우리 시대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5절)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 혹은 소명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정란이 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파란만장한 삶을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명에 대해 똑같은 말을 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갈 1 : 15–16).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6절). 이런 엄청난 선택의 은혜를 듣고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것은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놀랍고 당혹스러워서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참고로, 모세(출 3 : 11 ; 4 : 1, 10), 기드온(삿 6 : 15), 이사야(사 6 : 5)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당신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예레미야는 참 소심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소심한 반응에는 겸손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반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사사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삿 8 : 23). 이러한 기드온과 달리 그의 첩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의 배신으로 전쟁을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 죽고 만다(삿 9장). 자기 것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말로였다. 예레미야의 소심함이 아쉬워 보이지만,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귀하게 보신다.

3.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7–9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레미야의 능력과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하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두고 우리는 종종 '자의식'에 붙잡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곤 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하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은 자의식에 기초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실 것이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적들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았다(민 13 : 33).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나 적들에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

했기 때문에 적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민 14 : 8–9).

4. 예레미야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의 부르심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은 여섯 개의 동사를 통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9–10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시다.

앞의 네 가지 동사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고, 뒤의 두 동사는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먼저 예레미야의 사역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와 열방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를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건설하고 심는 것)도 전할 것이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종국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 교재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이 질문에 답한 자들에게는 1번(개인 적용)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할지 나누어 봅시다."

1.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실천해 봅시다.

각자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상기시키자.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한 주간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하자(예 : 자기중심적 삶, 바쁜 일정, 소심한 성격 등).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두려

움을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눅 12 : 11-12)라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다.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심히 약하여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전 2 : 3-5).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 8)라고 격려해 주셨다. 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 소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금의 교계를 돌아보고 그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고려해 보면,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 소그룹이 우리를 포함하여 전체 교회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본연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교회가 세상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